■ 민족문화연구 제82호(2019.02.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239-263.
http://doi.org/10.17948/kcs.2019..82.239

조선시대 '가족(家族)'의 등장과 성리학*

박미선(朴美善)**

목 차

1. 머리말
2. '가족'의 기원
3. '가족' 관련 용례의 검토
4. 성리학의 심화와 '가족'의 부상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사회에 있어서 최소의 집단으로 호명되는 '가족'이라는 용어가 불변의 고정된 어휘가 아닌 생명체와 같이 생성, 변용 또는 소멸의 과정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역사상 가족 관련 용례를 검토하여 그 기원과 출현 배경을 고찰하였다.

최초로 확인되는 한자어 '가족(家族)'은 정치행정단위로서 식읍의 식솔이라는 의미로 오늘날의 가족이라는 의미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오히려 '가(家)'라는 어휘가 혼인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의미 있는 어휘로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우리 역사상 고려시대까지 가족이라는 한자어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밝히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NRF-2018S1A6A3A04042721). 2018년 12월 14일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에서 개최한 국내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교수.

고, 조선시대 '가족'이라는 용어가 문헌상에 등장한 배경을 검토하였다. 한자어 '가족'이 조선의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확산된 계기로 주자(朱子)를 주목하고, 『주자대전』의 편집서인 『주자서절요』의 확산으로 그 개연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등장한 한자어 '가족'은 공동성과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공의 유대성 속에서 사적(私的) 성격을 지닌 집단의 의미를 지녔고, 종법 체제의 부활이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음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가족(家族), 가(家),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성리학(性理學).

1. 머리말

'가족(家族)'이라는 한자어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을 지칭한다. 그렇다면 '전근대' 시기에도 지금과 동일한 의미로 가족이라는 용어가 통용되었던 것인가. 또한 미래에도 가족이라는 용어는 계속 사용될 것인가 하는 물음에서 본 연구는 출발한다. 즉, 사회에 있어서 최소의 집단으로 호명되는 '가족'이라는 용어가 불변의 고정된 어휘가 아닌 생명체와 같이 생성, 변용 또는 소멸의 과정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역사상 가족 관련 용례를 검토하여 그 기원과 출현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가족에 대한 개념의 역사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동양의 한자문화와 정치사회에 존재했던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가족으로 호명되는 이 최소의 사회적 관계를 가족이라는 한자어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이며, 그 출현을 전후한 시기에 가족과 관련된 어휘들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대 이후 서구나 일본의 가족 개념을 수용하면서 기존의 여러 개념 중 가족이 선택되고, 이후 그 의미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세 번째 작업 즉, 근대 이후 가족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는 가족이라는 한자어가 우리 역사상 어떠한 과정에서 출현하였는지에 대한 논의로 한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검토 범위를 한정하려는 까닭은 오늘날 가족에 대한 인식이 근대에 새롭게 탄생한 것만이

아닌 '전근대' 사회의 가족 개념에 대한 의미의 총합이며, 여러 가족 관련 어휘 중 '가족'이라는 한자어가 근대에 최종적으로 의미 있게 인식되었던 역사적 맥락을 조선사회에서부터 파악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선 가족이라는 한자어의 기원을 살펴보고, 우리 역사상 '가(家)'에서 파생된 가족 관련 어휘를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가족'이라는 용어가 출현하기 전에, '사회의 최소 단위'를 표현하는 문헌상의 어휘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가족이라는 한자어가 출현한 시기를 비정하고, 그 등장의 의미를 주자성리학 입문서의 확산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가족이라는 용어가 모종의 대상이 실재하였던 때부터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통념을 불식시키고, 그 등장 배경을 학문 및 사상의 전파로 만들어진 관념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가족'의 기원

가족이라는 용어는 한나라 유향(劉向)이 춘추 전국시대까지의 어록을 정리한 『관자(管子)』「소광(小匡)」 편에서부터 확인된다. 그 의미를 파악하기에 앞서 가족이라는 용어를 구성하는 '가(家)'와 '족(族)'의 용례와 의미를 살펴보겠다.[1)]

'가(家)'는 갑골문에서부터 확인되는 한자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 의미가 확장되어 왔다. 『한어대사전』에는 방언 등의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27종의 설명이 있을 정도로 파생된 의미가 다양하다.[2)] 그중에서도 오늘날 가족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3가지가 주목된다.

첫째, 사람이 사는 거주 공간의 의미를 지닌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따르면, 가는 면(宀) 자와 시(豕) 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회의자로, 본래 뜻은 돼

1) 家의 기원과 개념에 대한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본 장을 서술하였다. 참고할 만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徐楊杰, 윤재석 옮김, 『중국가족제도사』, 아카넷, 2000, 13-20면; 장현근, 「家개념의 유래와 사회학」, 『전통과 현대』 2000・가을호, 전통과현대사, 2000; 미조구치 유조 외 엮음, 김석근・김용천・박규태 옮김, 「종법」, 『中國思想文化事典』, 책과 함께, 2015.

2) 가(家)는 좁게는 소규모 혈연집단에서부터 제자백가 등의 학파 및 국가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정체(政體)까지 다양한 규모의 집단을 포괄하는 어휘로 사용되었다.

지가 사는 곳이었는데, 의미가 전이되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뜻으로 가차되었다. 가(家)는 창과 문이 있는 방으로서 자연공간과 격리된 인위적 거주의 공간을 의미하였는데, 주나라 문왕의 조부 고공단보(古公亶父)가 가실(家室)이 없이 흙집이나 토굴에 살았다는 용례에서 확인된다.[3] 둘째,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는 의미도 포함한다. 중국 고대 하나라의 6대왕 소강(少康)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을 가(家)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였다.[4] 『좌전』에서는 여자의 배우자를 가(家)로 남자의 배우자를 실(室)이라고 하였다.[5] 셋째, 경제적 생계를 영위하기 위한 공재(共財)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좌전』「문공 14년」의 "가(家)를 다 쓰고 공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의 가(家)는 집안에 전해져 내려온 재산을 가리킨다.[6]

사람은 일정한 곳에 정착을 하고, 공동의 장소에서 거처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한다. 공동의 거주 공간은 혈연적으로 함께 하는 존재를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한하며, 상호 간에 긴밀한 공동존재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장소로서 의미를 지닌다.[7] 곧 집[家]이라는 형상적 구조에 의해서 가족의 범주가 구획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家)라는 공간에서 『주역』 가인괘에서도 확인되듯이 가족들 사이의 윤리적 규범이 실천되고,[8] 앞서 용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 생계를 함께 영위하는 최소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한편 '족(族)'은 회의 문자로 '화살이 가득 담긴 자루'를 가리키며,[9] '흘러들다[湊]', '모여들다[聚]'라는 의미이다. 같은 성을 가진 자손이 출생한 후에는 서로 친애하고, 사망하면 서로 애통해 하며, 평상시에는 함께 모이므로 족(族)으로 해석한 것이다.[10] 다만 족은 동거하지 않고 분거(分居)하고, 별도

3) 「大雅」, 『詩經集傳』 卷16. "古公亶父, 陶復陶穴, 未有家室."
4) 「離騷」, 『楚辭章句』 卷1. "及少康之未家兮, 留有虞之二姚."
5) 『春秋左傳注疏』 卷6. "傳十八年春, 公將有行遂與姜氏如齊, 注始議行事, 申繻曰, 女有家男有室, 無瀆也."
6) 『春秋左傳注疏』 卷19. "多聚土, 盡其家, 貸於公有司以繼之. 注家財盡從, 公及國之有司富者貸."
7) 김두헌,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 출판부, 1969, 347면.
8) 『周易本義集成』 卷2 ䷤. "家人利女貞."; 『周易本義集成』 卷4. "家人女正位乎內男正位乎外男女正天地之大義也. 家人有嚴君焉父母之謂也. 父父子子兄兄弟弟夫夫婦婦而家道正正家而天下定矣."
9) 『說文解字注』 卷7. "束之族族也. 族族, 聚見. 毛傳云, 五十矢為束. 引伸為凡族類之傳."

의 독립적인 재산을 소유하는 분재(分財)가 이루어지고, 매일 함께 식사하지 않고 각자 식사하는 각찬(各爨)의 여러 가(家)가 동일한 지역에 모여 살면서 일정한 규범에 따라 혈연관계로 결합된 사회조직 형태이다.

한편 '가'와 '족'을 결합한 '가족'이라는 용례는 주대(周代) 봉건 제후의 방계 친족을 통합하면서 만들어진 봉건제도와 연관하여 확인된다.

> "공(公)은 공족(公族)을 다스리시고, 가(家)는 가족(家族)을 다스려서, 서로 국사로 이어지게 하고 서로 녹봉으로 함께 하면 사람이 서로 친해질 것입니다."[11]

『관자』에 기록된 위의 내용은 제나라 제후인 환공이 천하 제후가 되기 위한 방법을 묻자, 재상 관중이 답한 것이다. 관중은 천하의 제후가 되는 방법으로 각자의 직분에 맞추어 자신이 통치하는 영역을 잘 다스릴 것을 제안하였다. 공은 공족(公族)을 잘 다스리고, 그 아래 가(家)는 가족(家族)을 다스려서 국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는 중국 은나라 후기부터 귀족들의 혈연에 기초한 가가 상당한 규모를 가진 거대집단으로 성장하여 정치사회의 핵심단위가 된 것이다. 주공(周公)이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봉건(封建)과 종법(宗法)을 기초로 사회 조직을 재구성하게 되면서 가는 정치 행정단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주공은 천하를 71개의 국(國)으로 나누어 제후(諸侯)로 하여금 국을 다스리도록 하고, 제후에 의해 봉해진 경이나 대부(大夫)는 가(家)를 다스리게 한 것이다. 이로써 가족은 상당한 규모를 가진 경대부들의 일종의 식읍과 식솔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12]

'가족'이라는 한자어는 이처럼 오늘날의 가족이라는 의미와 다르게, 경대부의 정치행정 단위와 그 식솔이라는 제한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더구나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가면서 경대부의 가가 제후들을 뒤엎고 국을 통합해 버리면서, 국과 가의 구분도 없어지게 되어, 정치행정 단위와 식솔로

---

10) 班固, 『白虎通義』 卷8. "族者, 湊也聚也, 謂恩愛相流, 湊也生相親愛, 死相哀痛, 有會聚之道, 故謂之族."
11) 「小匡」, 『管子』 卷8. "公修公族, 家修家族, 使相連以事, 相及以祿, 則民相親矣."
12) 하, 상, 주 시기의 종족조직과 춘추전국시기 종족조직의 와해에 대한 상세한 과정은 다음 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徐楊杰, 앞의 책, 111-265면.

서 '가족'이라는 어휘의 시효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13] 이렇게 볼 때, 오늘날의 가족이라는 의미에 상응할 수 있는 용어는 『관자』에서 사용된 '가족'이라는 용어보다는 동거(同居), 공재(共財), 합찬(合爨)의 경제생활 단위이자,[14] 가족구성원 간에 윤리규범을 실천하는 장소로서 '가(家)'라는 한자가 문헌 자료에서 의미 있게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가족' 관련 용례의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자어 '가족'은 춘추시대 또는 아무리 늦어도 한나라 때에 출현하였으며, 그 의미도 오늘날과는 자못 다른 정치행정 단위로서 식읍과 그 식솔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상 '가족'이라는 한자어는 언제 등장하였고,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가족'을 검색하였다.[15] 그런데 '가족'이라는 용례는 고대나 고려시대의 문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검색 가능한 우리나라의 문헌자료에서 가족이라는 한자어는 조선시대에 처음으로 확인되었다.[16]

『조선왕조실록』에서 가족이라는 용례는 18세기 조선 정조대에 나타난다. 물론 이때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언제 사용되었고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4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

13)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가면서 가(家)는 혈족으로 구성된 가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켜 모든 식솔을 아우르는 정치단위가 되었고, 이 단위는 더욱 커져 국을 위협하는 수준이 된다. 이에 대부가 정치를 전횡하는 모습도 등장하였고, 유가의 맹자사상에서 국가(國家) 개념이 가의 확장 형태로서 국을 상정하는 것과도 연결되었다. 이렇게 커진 가들이 제후들을 뒤엎고 국을 통합해 버리면서, 국과 가의 구분은 없어지게 되었다. 장현근, 앞의 글, 24-25면.

14) 서양걸은 경제단위로서 가정의 주된 특징을 '동거(同居), 공재(共財), 합찬(合爨)'으로 요약하였다. 徐楊杰, 앞의 책, 16-20면.

15) 「가족」,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2018.12.31 검색).

16) 『조선왕조실록』에서 '가족'은 35개의 한자어가 확인된다. 하지만 대다수가 '○家族○'의 형태로 本家, 嬪家, 國家 등으로 사용된다. 구체적 집안에 연속하여 그 집안의 족속이나 족친을 연결하여 쓰이는 경우이다. 즉, '○(本, 主, 曺, 逆, 一, 通)家의 族○(屬, 親, 派, 黨, 譜)'과 같은 형태로 사용된다. 또는 '○家族'의 형태로 사용된다. 이 경우 '(吾, 我, 良)○家의 族'으로서, 우리 집안의 족친이므로 제외하였다.

고, 여기에서는 『조선왕조실록』에서 가족이라는 용어가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겠다.

A-1) 만약 조정의 신하 중에서 이필(李泌)이 가족을 담보로 삼아, 태자(太子)의 무죄를 보증하겠다고 울면서 아뢰듯이 하였다면, 어찌 자애하신 성총(聖聰)을 돌리지 못하였겠습니까?[17]

A-2) 신은 이미 위로 천지신명에게 다짐을 하였고 아래로 모든 가족에서 맹세를 하였습니다.[18]

B) 근래 흉역(凶逆)이 잇따라 발생하여 큰 옥사가 누차 일어나고 있는 탓으로 하나의 역(逆)이란 글자의 명목이 곧 하나의 당연한 권투(圈套)로 굳어지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털끝만큼이라도 틀리게 되면 충신과 역적이 금방 판별이 된다. 따라서 한번 발을 드는 사이일지라도 혼동시켜 몰아붙여 버리기 때문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일단 그 권투에 빠져버리면 작게는 신명(身名)이 육욕(僇辱)을 당하고 크게는 가족이 멸하게 된다. 이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마치 스스로 충신, 역적의 의리의 사이에서 보존하지 못할까봐 당초부터 감히 쉽사리 말하지 않고 있다.[19]

C) 김종수(金鍾秀)는 천성이 험악하고 처신이 간특하여 뱃속에 가득찬 것은 모두 여기(戾氣)뿐이요 발언과 행사가 모두 화심(禍心)뿐인데 자칭 사류(士類)라 하여 마음을 속이고 세상을 속였습니다. (…) 아주 작은 원한으로 반드시 남의 가족을 멸망시키고자 하고, 성세를 떨치게 되면 반드시 자기가 위복(威福)을 짓고자 하였습니다.[20]

A-1)은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의문점 등에 대해서 영남 유생 이응원이 올린 상소문이다. 이응원이 예로 들고 있는 이필(李泌)은 당(唐)나라 때, 현종(玄宗)·숙종(肅宗)·대종(代宗)·덕종(德宗)을 두루 섬겼던 인물로, 덕종이 태자(太子)를 폐하려 할 때에 왕을 설득하여 중지시킨 인물이다. 그가 그

17) 『正祖實錄』 卷2 正祖 卽位年 8月 6日 乙巳. "若使廷臣有李泌家族保儲之泣奏, 豈不回止慈之聖聰乎."
18) 『正祖實錄』 卷29 正祖 14年 3月 20日 庚子. "臣旣上質于天地神明, 下誓以家族百口."
19) 『正祖實錄』 卷29 正祖 14年 3月 20日 庚子. "第近來凶逆層出, 大獄屢起, 至以一逆字名目, 便成一副當圈套. 毫釐或差, 忠逆立判. 一擧足之間, 混同驅去, 未及回旋而已. 落在這圈套中, 小則身名僇辱, 大則家族湛滅. 是以人皆惴惴, 若不自保. 忠逆義理之間, 初不敢容易下說"
20) 『正祖實錄』 卷35 正祖 16年 5月 24日 辛酉. "金鍾秀之賦性凶險, 行已羣慝, 撑腸拄腹, 都是戾氣, 發言行事, 無非禍心, 自稱士類, 欺心而欺世. (…) 睚眦之怨, 必欲滅人家族, 聲勢所張, 必欲作己威福."

가족을 담보로 태자의 무죄를 간절히 청한 사례가 확인되는 것이다. A-2)는 영의정 김익(金熤)이 가족 백구(百口), 곧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맹세한 내용이다. 이 두 사례를 볼 때, 자신의 결백이나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 맹세의 대상으로 가족을 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B)는 『명의록』의 의리와 관련하여 흉역으로 몰리게 된 경우 가족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흉역으로 몰리게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가족까지 결단 나게 된다는 것이다. C)는 김종수(金鍾秀)의 못된 성품을 설명하는 것으로 자신이 원한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가족까지 멸망시키고자 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가족은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관용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공동 책임의 대상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가족이라는 어휘가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되지만, 빈번하게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고려시대까지는 문헌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오늘날 가족이라고 호명되는 사회의 최소단위를 문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었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에서 '가(家)'라는 어휘를 중심으로 용어를 살펴보았다.[21] '가'에서 파생된 어휘는 6개의 계통으로 나눌 수 있었다. '가'에 ①일(一)·이십(二十)·천여(千餘) 등과 같이 숫자를 덧붙인 사례, ②구(口)·인(人) 등 가족 구성원을 의미하는 글자를 덧붙인 사례, ③오(吾)·여(汝)·아(我) 등의 지칭어를 덧붙인 사례, ④호(戶)·문(門)·실(室)·정(庭) 등 공간과 관련된 글자를 덧붙

21) 가족과 관련된 한자어를 추출하는 기준을 객관적 방법으로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앞 장에서 '가(家)'의 의미가 오늘날 가족의 의미와 유사하다는 것을 파악하였으므로, 가를 중심으로 사료를 뽑았다. 우선, 『한어대사전』에서 '가'와 관련된 단어를 뽑고, 『고법전용어사전』에서 다시 관련 어휘를 정리한 후,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와 관련된 어휘를 보완하여, 다시 의미 있는 한자어를 선별하였다. 이러한 분류가 다소 자의적일 수는 있지만, 연대기 사료는 각 시대의 대표적인 역사서로서 춘추필법의 공정성을 유지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가족 관련 용례의 보편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삼국사기』와 『고려사』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에서 '家'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원문에서 확인되는 한자어를 추출하였다. 『삼국사기』에서 '家'는 275건, 『고려사』에서 '家'는 1518건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는 번역본과 중복된 내용이거나, 각주 부분에 관련 한자가 포함되거나, 인명에 포함되는 등 가족의 의미를 넘어서는 한자어가 포함된 수치이다. 이 중 가족의 범위나 개념과 관련된 어휘를 중심으로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인 사례, ⑤혈연의 유래나 계통을 나타내는 본(本)·처(妻)·외(外)·인(姻) 등을 덧붙인 사례, ⑥종(宗)·소(小)·속(屬)·족(族) 등 집단의 단위나 크기를 의미하는 글자를 덧붙인 사례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22]

첫째, '가'에 일(一)·이십(二十)·천여(千餘) 등과 같이 숫자를 덧붙인 사례는 『삼국사기』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조선왕조실록』까지 두루 확인된다. 단순 숫자를 덧붙인 경우에는 부역이나 유민, 투항민 집단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일가(一家)'는 '하나의 집'이라는 직접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기보다는 '한 집안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23] 또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우호 관계나 결합을 드러낼 때에도 일가라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사용하였다.[24]

둘째, '가'에 구(口)·인(人) 등 가족 구성원을 의미하는 글자를 덧붙인 사례가 있다. 가구(家口)는 고구려 고국천왕 조에서부터 확인되는 용어이다. 고구려에서 진대법을 실시할 때 가구의 다소에 따라 곡식이 차등적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아, 국가가 인민을 파악하는 단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25] 가인(家人)은 자기 집안의 사람을 가리키거나 자기의 아내만을 한정하여 이르기도 한다.[26] 이는 앞서 살펴봤던 『주역』 가인괘가 부덕(婦德)과 혈연 및 혼인으로 이루어진 관계망에서 연원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가'에 오(吾)·여(汝)·아(我) 등의 지칭어를 덧붙인 사례가 있다. 대체로 '-집안'의 의미로 파악되는데, '오가(吾家)'와 '여가(汝家)'는 『삼국사기』에서부터 사용되었다. 김유신이나 온달 등이 자신의 집안을 오가로 표현하였다. 한편 '아(我)'는 '오(吾)'에 비해서 '비교적 강조된 나, 우리의 의미'를 지니는데, '아가(我家)'는 『고려사』에서부터 파악된다. 고려 후기의 문신 안종원

22) 다음에서 나눈 6개의 계통에 대한 각주의 사례는 많은 용례 가운데 시기가 빠른 것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해 두었다.
23)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善德王 14年. "一家男女瞻望涕泣, 公不顧而歸."
24) 『三國史記』 卷43 金庾信 下. "三韓爲一家, 百姓無二心, 雖未至大平, 亦可謂小康."
25) 『三國史記』 卷16 高句麗本紀 故國川王 16年 10月. "命有司, 每年自春三月, 至秋七月, 出官穀, 以百姓家口多小, 賑貸有差, 至冬十月還納, 以爲恒式."
26) 『三國史記』 卷50 甄萱. "大王勤勞四十餘季, 功業垂成, 一旦以家人之禍, 失地投於高麗."; 『三國史記』 卷47 丕寧子. "若父子併命, 則家人其將疇依."

(1325-1394)의 집안을 가리키는 경우에도 사용되었지만,[27] 대부분의 경우 고려 국왕이 조서나 칙서를 반포하거나 신하들과 접견할 때에 국가나 왕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28]

넷째, '가'에 실(室)·호(戶)·문(門)·정(庭) 등 공간과 관련된 글자를 덧붙인 사례가 있다. 실은 부부가 거처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구려에서는 가실이 아니라 '실가(室家)'라고 쓰였는데, 고구려 내에 흩어져 있었던 중국인을 모아 돌려보내는 내용과 관련하여 확인된다.[29] 이후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가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방이나 집 또는 출입구를 가리키는 호(戶)와 결합된 가호(家戶)나[30] 출입을 위해 만든 문(門)과 결합된 가문(家門)이라는 용어는 『고려사』에서부터 나온다.[31] 그리고 집과 건물에 딸린 야외 공간인 뜰[庭]과 가(家)의 결합은 『조선왕조실록』에서부터 나타난다. 이때 가정은 '집안의 뜰'이라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으로서 교육이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물리적 생활공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가정지훈(家庭之訓)'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고려 말 조선 초 가훈서의 유입과 소학 교육의 강조 등과 맞물려 나타난 용어로 보인다.[32]

다섯째, '가'에 혈연의 유래나 계통을 나타내는 본(本)·처(妻)·외(外)·인(姻) 등을 덧붙인 사례가 있다. 앞서 살펴본 유형의 용어보다 그 등장 시기가 비교적 늦다. 그중 '외가(外家)'라는 용어가 『삼국사기』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지만, 그 시기는 9세기이다. 궁예의 출생과 관련하여 '외가(外家)'라는 표현

---

27) 『高麗史』 卷109 安宗源. "我家有人, 殆益昌乎."

28) 『高麗史』 卷70 惠宗第二室. "天造我家, 或不來庭."; 『高麗史』 卷28 忠烈王 卽位年 9月. "我家安危, 只在卿等, 事有可言, 不可含嘿."

29)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 榮留王 5年. "隋氏季年, 連兵構難, 攻戰之所, 各失其泯, 遂使骨肉乖離, 室家分析, 多歷年歲, 怨曠不申."

30) 호(戶)는 집 또는 출입구를 의미하지만, 이외에도 주호(主戶), 호적(戶籍) 등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구분의 편의상 공간과 관련된 어휘로 구분하였을 뿐, 그 성격상 가구(家口), 연(烟) 등의 용어와 함께 국가의 수취 대상을 구분할 때 사용된 용어임을 고려하고 있다.

31) 『高麗史』 卷27 元宗 13年 6月. "鹽州海州等處種田軍. 年前, 旣入處百姓家戶而經冬, 春月, 並當出歸農所, 而便不離家戶者多矣, 實百姓所悶望."; 『高麗史』 卷82. "仰都評議使, 行移各道, 家戶屯田, 一皆禁止, 其餘屯田, 亦從優典, 量力屯種, 以補糧餉."; 『高麗史』 卷100 崔世輔. "初世輔構第, 遍一坊, 四面各置第宅, 爲子孫計, 未久, 家門盡滅."

32) 『세종실록』에서부터 확인되지만, 조선시대 문집에서는 정도전의 『삼봉집』에서부터 등장한다.

이 사용되었는데, 그 해석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친족관계에 있어 출계를 가리키는 용어가 고려 건국 이전 9세기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33] 또한 『고려사』에서는 신급제 의식에서 본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34] 처가와 정치적 입장을 같이한다거나,[35] 피휘를 위해 외가의 성을 따르는 사례 등이 확인된다.[36] 이처럼 『고려사』에서는 출계가 드러나는 어휘가 확인되는데, 고려시대 음서제의 대상이 사위에게도 해당되면서 처족, 처가와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등 양측적 친속사회의 사회제도적 요소가 용어의 사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가'에 속(屬)·소(小)·종(宗)·족(族) 등의 집단의 단위나 크기를 의미하는 글자를 덧붙인 사례가 있다. 가속(家屬), 가소(家小)는 『고려사』에서부터 확인되고, 가족(家族), 종가(宗家) 등은 『조선왕조실록』에서부터 등장한다. 가속(家屬)을 살펴보면, 속(屬)은 '무리'라는 의미로 그 규모는 다양하다.[37] 가속의 범주는 김방경의 사례에서 아들과 사위, 가속을 모두 경사로 보내어 노예로 삼는다고 하였던 점으로 볼 때, 그 범주에 노예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38] 한편 '가소(家小)'는 가에 작을 소(小)를 덧붙였는데, 나인의 가소나 수령의 가소 등의 용례도 확인되지만, 대체로 변경 지역에서의 군민 쇄환이나 압송 등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고, 그 규모는 수 명에서 수백 명으로 파악된다.[39] 가소라는 용어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조선후기로 가면서 사용빈도가 점차 줄어든다.[40] 종가(宗家)의

33) 『三國史記』 卷50 弓裔傳. "以五月五日, 生於外家."
34) 『高麗史』 卷68 新及第進士榮親儀. "訖, 新及第先行, 州官隨至本家, 略設酒果, 令新及第, 上壽父母乃出."
35) 『高麗史』 卷28 忠烈王 4年 9月. "辛卯, 王遣譯者校尉崔奇, 上書中書省曰, 向蒙聖旨, 令官軍盡還, 且勅忻都曰, 軍人指稱妻家族黨, 挾帶而來者, 汝其禁之."
36) 『高麗史』 卷21 神宗 元年 5月. "己亥, 有司, 請避上嫌名, 令諸姓卓者, 從外家姓, 若內外姓同, 則從內外祖母之姓."; 『高麗史』 卷15 仁宗 4年 5月. "朕以幼冲, 承襲祖業, 意欲倚賴外家, 事無大小, 一切委任, 而縱爲貪暴, 殘民害國."
37) 『高麗史』 卷33 忠宣王 2年 9月. "九月己卯, 元流寧王于我國. 寧王世祖庶子, 謀叛事覺, 與其家屬五十餘人偕來."
38) 『高麗史』 卷104 金方慶. "方慶及子壻家屬, 悉送京師, 以爲奴隸."
39) 『高麗史』 卷136 禑王 13年 2月. "李朶里不歹等, 前來寄居, 除將本人等連家小三百五十八名, 欽依發遣, 外惟土人之還歸, 實舊業之是復."
40) 『고려사』에는 1373년과 1387년 2건의 내용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총 66건의 사례가

범주는 문공가례의 대종 소종도에 의해서 같은 사당에서 동일한 조상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종족이 그 대상이 된다. 소종가(小宗家)는 증조의 맏아들의 맏손자를 종손으로 하여 같은 사당에 나아가 신주를 모셔 제사를 지내는 일에 참여하는 증조의 여러 자손을 범주로 하여 가족 규모를 이루었다.[41] 가족은 본 장의 앞에서 살펴봤듯이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관용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공동 책임의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이상 여섯 가지 계통으로 나누어 가족 관련 용례를 살펴보았다. 가족 내 구성원 간의 관계나 개인의 친밀감을 기초로 하기보다는 공간, 혈연의 유래나 계통 또는 집합적 단위의 어휘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헌에서 이처럼 혈연적, 집합적 단위의 가족 용례가 나타나는 것은 당시 개인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의미 있게 생각되는 사회 구성의 최소 단위에 대한 인식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고대 신라나 고려, 조선 등 신분제 사회에서 골품(骨品)이나 문벌(門閥)은 개인이 관료가 되어 정치사회적 지위를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다. 국가 역시 수취 및 역 징발에 있어서 공연(孔烟)이나 정호(丁戶) 등 개별 가를 여러 개 결합한 세대복합체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편리하였다.[42] 즉 개인은 혈연관계를 맺는 개별 가(家)의 결합으로서 족(族)적 단위를 통해서 정치사회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

확인되는데, 『태조실록』 13건, 『태종실록』 18건, 『세종실록』 19건, 『문종실록』 3건, 『세조실록』 5건, 『중종실록』 3건, 『선조실록』 3건, 『광해군일기』 1건, 『인조실록』 1건 등이다.

41) 『世宗實錄』 卷50 世宗 12年 10月 29日 丙申. "宣德四年四月日, 禮曹受敎, 曾祖廟, 依文公家禮大宗小宗圖, 推曾祖之長子之長孫爲宗, 營祠堂立神主行祭. 同曾祖衆子孫詣其家, 與執事以物相助."

42) 고구려나 신라에서는 가(家)나 호(戶)를 연(烟)이라는 명사로 규정하였고, 삼국은 개별 세대 연을 5-10개로 결합한 세대복합체를 수취의 대상으로 삼았다. 신라장적에 따르면 7세기 말 통일신라의 농가는 곧 공연(孔烟)이었으며, 공연은 몇 개의 연이 하나로 묶인 상태로서 세대복합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722년 정전제 이후 정호(丁戶)로 이름이 바뀌고 평균 8가(家)의 인구와 8결의 토지가 결합한 세대복합체가 이를 대신하였으며,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농가 경제의 개선으로 정호의 세대복합체로서의 결속력이 이완되었고, 고려 충렬왕이 중국의 법제에 따라 호구를 조사하는 방침이 시행되면서 소규모로 가족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공민왕대에는 3가를 하나의 군호로 편성하는 과정이 있었고, 조선 세조대에는 군역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호구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조선후기 소농의 자립 과정에서 주호(主戶), 협호(挾戶), 총호(塚戶) 등으로 변천을 보였다. 이영훈, 『한국경제사』 Ⅰ, 일조각, 2016, 92면, 129-130면, 160-161면, 249-251면, 292-293면, 475-477면.

었고, 국가는 개별 가를 여러 개 묶어 '세대복합체' 단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역을 징발하고 세금을 걷는 데 용이하였다. 따라서 당대의 문헌에 가족의 용례도 혈연적 집합적 단위의 용어가 의미 있게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 가운데에서도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가정이나 가족이라는 어휘가 조선시대부터 등장한다는 것이 주목된다. 그중에서도 가족이라는 어휘의 출현 시기와 등장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4. 성리학의 심화와 '가족'의 부상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왕조실록』에서 가족이라는 한자어는 18세기 후반 나타나지만, 문집에서는 이보다 앞서 17세기부터 확인된다.[43] 그중 현재까지 살펴본 바로는 1618년(광해군 10) 장유(張維, 1587-1738)가 쓴 송방조(宋邦祚, 1567-1618)의 묘지명이 비교적 이른 사례이다. 임진년 왜구가 도성을 함락하자, 송방조가 가족을 데리고 호서지방으로 피난을 떠난 내용이다.[44] 장유는 물론이고 이후 성리학자들도 자신의 문집에 이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전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가족이라는 한자어가 17세기 초반 출현하였다는 점은 분명히 주목된다. 왜 17세기 이후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가족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였고, 그 계기는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일까?

조금 뒤의 기록이지만, 1666년(현종 7)과 1683년(숙종 9) 송시열의 다음 답서를 통해 그 실마리를 유추할 수 있다.[45]

D-1) 若雲擧則二叔季, 方入淸要, 主張淸議, 其得失是非, 不得不與相關. 萬一有誤事失圖之端, 則所謂家族不足惜, 奈國家何者, 實足寒心.
그대의 셋째 숙부와 넷째 숙부가 드디어 청요직에 입사하여 청의를 주장

43) 현재(2018년 11월)까지 고전번역원 DB에서 家族을 검색하면 모두 274개가 확인된다. '○家族○', '○家族(其家族, 吾家族 등)' 등의 형태를 제외한 가족이라는 한자어는 159개이다.
44) 張維, 「故通訓大夫兵曹佐郎宋公墓誌銘」, 『谿谷集』 卷10. "壬辰倭寇陷都城, 公以家族避兵湖中."
45) 주자의 「答張敬夫書」와 송시열의 「答李雲擧」, 「與朴和叔」의 번역 및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신, 이관성, 이향준, 설배환 선생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하니, 그 시비득실을 함께 상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 만일 하나라도 일을 잘못 처리하거나 실수의 기미가 있다면 이른바 '가족은 애석해 할 것이 없지만, 국가는 어찌한단 말인가'라고 할 수 있으니, 실로 마음이 서늘하네.[46]

D-2) 十一板○家族 (止) 家何 ①(朱子諷南軒語)
11번째 편지 ○ '가족'(부터) '가하'까지.(주자가 남헌에게 고한 말)[47]

D-3) 大抵變異之慘, 振古所無, 而大小緩視, 少無汲汲遑遑底意思. 久而同受其罪, 恐非所宜. 此朱夫子所以以家族不足惜, 奈於天下國家之說. ②警南軒也
대저, 변이의 참혹함은 옛날에도 없었는데, 크고 작은 일을 천천히 살펴보니 정신을 몰두하여 열심히 해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함께 그 죄를 받으니 아마도 마땅하지 않은 듯하네. 이 때문에 주자가 '가족은 애석해 할 것이 없지만, 천하 국가는 어찌하란 말인가'란 말로 남헌을 경계한 것이라네.[48]

D-1)은 송시열이 이상(李翔)에게 답한 편지로 이상의 셋째, 넷째 숙부가 청요직에 입사하여 국사에 관여하게 되어 일을 잘못 처리하거나 실수할 경우를 염려하며, '가족은 애석해 할 것이 없지만, 국가는 어찌한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D-2)는 D-1)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송시열의 후손 송근수가 주를 달아 출처를 밝힌 것이다.[49] D-3)은 송시열이 박세채에게 답한 편지글이다. 두 편지글에서 확인되는 '家族不足惜, 奈國家何'와 '家族不足惜, 奈於天下國家'는 ①과 ②로 보아, 주자가 남헌에게 고한 말에서 인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용어를 송시열이 인용했다는 사실은 일견 사소한 사항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용어의 출처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문헌자료에서 '가족'이라는 한자어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즉, 하나의 용어가 확산되는 과정은 당대의 사회적 합의 내지는 수용적 태도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① 주자가 남헌에게 고한 말[朱子諷南軒語]과 ② (주자가) 남헌을 경계한 것이라네[警南軒

46) 宋時烈, 「答李雲擧」, 『宋子大全』 권46.
47) 宋近洙, 「卷之四十六 書」, 『宋子大全隨箚』 권5.
48) 宋時烈, 「與朴和叔」, 『宋子大全』 권68.
49) 송근수(宋近洙, 1818-1903)는 『宋子大全』에 주를 달아서 『宋子大全隨箚』를 편찬하였다.

也]의 내용이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 그 출처와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 사료에서 밑줄 친 문장은 주자의 문집 『회암집』(일명 『주자대전』) 가운데에서도 주자가 '장경부(張敬夫)에게 보낸 답서[答張敬夫書]'에 수록되어 있다.[50] 여기에서 경부(敬夫)는 사료 ①과 ②의 남헌을 가리키는 것으로 각각 장식(張栻, 1133-1180)의 자와 호를 의미한다.[51] 주자가 장식에게 이 답장을 쓴 것은 1170년이었다. 당시 주자는 어머니의 상중(喪中)에 있었고, 장식은 국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장식은 1163년부터 자신의 아버지 장준과 효종 사이에서 금나라와의 화의문제에 관여하고 있었다. 1170년에 다시 국시인 화의문제가 제기되자 효종은 장식을 소환하여 자문역을 맡도록 하였다.[52] 이 시기 장식은 늘 주자에게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하면 효종의 마음을 감동시켜 정국을 혁신할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53] 주자의 이 답서도 장식이 효종에게 상소를 올리기 전 초고의 내용을 회신한 것이었다.[54]

주자는 금나라에 대해 복수하고, 북송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고, 이를 총괄하는 국왕은 끊임없는 수신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왕을 시해한 적군이 있으면, 그 적을 토벌할 때까지 왕의 장례를 지내지 않는다는 『춘추』의 기록을 근거로 원수를 갚아 대의를 지켜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종사의 말을 인용하여, 비통함을 생각하고 피눈물을 닦고 눈물을 삼키며 복수를 다하다가 죽어야 한다는 충효의 정신을 강

50) 朱熹, 「答張敬夫書」, 『晦庵集』 卷25.
51) 장식은 남송시대에 주자, 여조겸, 육구연 등과 함께 이학(理學)이 유학의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인물이었고, 주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장식은 정호에, 주자는 정이에 비견되어 평가되기도 할 정도로 학문적 교류가 긴밀한 인물이었다. 宇野哲人, 손영식 옮김, 『송대 성리학사 2』, 울산대 출판부, 2005, 186면.
52) 1146년 정강(靖康)의 난 가운데 휘종의 아홉째 아들 조구가 도망쳐 황위를 계승하여 남송을 세우고, 고종으로 즉위하였다. 금나라 군대에 의해서 송의 휘종과 흠종은 북으로 압송되었고, 1135년 휘종이 죽고, 1156년 흠종이 죽었다. 남송이 세워진 초기 금나라의 침입을 악비, 한세충 등 항전을 주장하는 장수들이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또 북벌을 추진하며 대치국면을 이루었다. 하지만 1165년 금나라와 화의하면서 송나라는 금나라의 조카로 칭하게 되었고, 암묵적인 평화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송 건국 초부터 국시인 '화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던 것이다.
53) 余英時, 이원석 옮김, 『주희의 역사세계』 하, 글항아리, 2015, 713면.
54) 陳來, 『編年考證』(증정본), 上海人民出版社, 1987, 71면; 束景南, 『朱熹年譜長編』, 華東師範大出版社, 2001, 432-435면.

조하였다. 아울러 조종의 능묘를 되찾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여 금나라와 화의를 맺게 된다면 오히려 국가적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55] 이러한 답서의 내용에 연결하여 '가족은 애석해 할 것이 없지만, 종사는 어찌한단 말입니까?[家族不足惜 奈宗社何]'라는 내용을 기술하였던 것이다.[56]

가족보다 종사 곧 국가의 보존을 중요시한 주자의 이러한 은유적 표현은 송의 역사적 맥락을 함축한 것이었고, 조선사회의 성리학자들에게도 의미 있게 수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하였고, 병자 정묘호란 이후 효종은 청나라에 복수를 하는 것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았다. 동시에 전쟁으로 인해 붕괴된 조선의 공동체 질서를 재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은 남송과 금나라의 국제적 관계가 문제시되고 있었던 시대와 오버랩 되는 것이었다.

특히 송시열은 '주자의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확고부동한 주자 존숭론자였다. 주자가 남송의 효종을 자신의 군주로 여겨 개혁하고자 하였던 것처럼,[57] 송시열도 당시 조선의 현실을 주자가 살았던 남송과 유사하다고 보아 조선의 효종에게 주자의 사업이 그대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58] 또한 송시열은 주자의 문집 『주자대전』을 정리하는 데 평생 동안 정력을 기울여, 마지막 죽음에 직면해서도 그의 제자 권상하(權尙夏)와 김창협(金昌協)

55) 주자는 당시 현실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이적에 대항하는 중국이라는 집단이 견고성을 상실하자, 가족이라는 단위집단의 테두리를 다시 정립하여 사람들에게 의리와 예의를 알게 하려 했다. 정이가 만든 가례는 주자의 『주자가례』로 이어지는데, 자신이 속한 집단의 현상에 관한 심각한 위기의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 너머북스, 2014, 331-332면.

56) 朱熹, 「答張敬夫書」, 『晦庵集』 卷25. "又須審度彼已, 較時量力, 定為幾年之規. (…) 如其不然, 則計慮不定, 中道變移, 不惟不能成功, 正恐民心內搖, 仇敵外侮, 其成敗禍福, 又非坐而待亡之比, 家族不足惜, 奈宗社何." 밑줄 친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①"가족조차 애석해 할 수 없는 처지에 종묘와 사직은 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백은기, 「주자대전 번역 연구」(KRF-2003-071-A12001), 전남대, 2003. ②"가족들의 환란이야 아까울 것이 없겠지만 종사를 장차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퇴계학연구원 편, 『국역 주자서절요』, 퇴계학연구원, 2001. ③"가까운 가족은 애석하지 않더라도 종묘사직은 어찌 되겠습니까?" 박경래 역, 최두남 조역, 『국역 주자문록』,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2014-2015.

57) 余英時, 앞의 책, 681-711면.

58) 이경구, 「조선후기 '주자주의'의 동향과 이용후생 개념의 부상」, 『개념과 소통』 제10호, 한림과학원, 2012.

에게 고증을 통해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송시열이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남송시대 주자가 종사[국가]와 가족을 바라보던 인식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주자의 답서에 담긴 의리, 복수, 국왕의 수신 등의 사상이 송시열의 시대에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16세기 말 성리학자들의 수용이 전제되어 있었다. 이미 선행 연구들에 의해서 밝혀졌듯이 1543년(중종 38) 『주자대전』이 조선에서 처음으로 간행된 이후,[59] 조선에서는 『주자대전』을 편집하여 책으로 편찬하거나 주석을 달거나 해석하는 등 그 연구가 심화 발전되었다.[60] 호남의 기대승(奇大升, 1527-1572)과 영남의 이황은 『주자대전』을 편집하여 『주자문록』과 『주자서절요』를 완성하였다. 그중에서도 이황의 『주자서절요』는 성리학의 핵심 교재로 활용되었다.[61] 이황은 주자의 수많은 글 가운데에서 성리학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자가 친구나 제자들과 주고받은 편지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62]

국왕인 정조(正祖, 1752-1800)도 『주자서절요』를 기준으로 하여 주자의 편지 100편을 뽑아 『주서백선』을 편찬하였다. 이황의 『주자서절요』는 조선에서만 8차례 활자와 목판으로 간행되어, 경서(經書)에 버금가는 권위와 영광을 누렸다. 『주자서절요』의 편찬은 조선에서 주자학의 시대를 열었고, 이후

---

59) 李滉, 「序」, 『朱子書節要』. "此書之行於東, 絶無而僅有, 故士之得見者蓋寡. 癸卯中我中宗大王命書館印出頒行."

60) 이향준, 「한국 성리학의 해석학적 발전—「주자대전」의 주석서를 중심으로」, 『율곡사상연구』 제25집, 2012. 『주자대전』에 대한 연구 성과는 이 논문의 각주 1을 참고하기 바란다. 주석서는 영남학파와 기호학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영남학파에서는 『朱子書節要』의 주석서인 『朱子書節要講錄』과 『朱子書節要記疑』, 鄭經世(1563-1632)가 『朱子大全』에서 서찰 이외의 글 중 긴요한 것을 선별 정리한 『朱文酌海』(1622), 李栽(1657-1730), 李象靖(1710-1781) 등이 『朱子書節要講錄』을 보완한 『朱書講錄刊補』(1785), 李象靖이 『朱子語類』에서 중요 내용을 선별, 정리한 『朱子語節要』, 柳致明(1777-1861)이 『朱子書節要』를 재편집한 『朱節彙要』 등이 편찬되었다. 기호학파에서는 趙翼(1579-1655)이 『朱子書節要』를 재편집한 『朱書要類』와 朴世采(1631-1695)가 『朱子大全』에 누락된 遺文들을 모아 편집한 『朱子大全拾遺』, 宋時烈(1606-1689)이 손자 宋麟錫(1650-1692)과 함께 『朱子書節要』와 『朱文酌海』를 합한 후 주석한 『節酌通編』, 그리고 宋時烈이 『朱子大全』을 주석한 『朱子大全箚疑』 및 이에 대한 일련의 보완 저술들이 편찬되었다.

61) 이상하,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가 조선조에 끼친 영향」, 『퇴계학보』 제132집, 퇴계학연구원, 2012, 8면.

62) 李滉, 「序」, 『朱子書節要』.

로도 『주자대전』의 편집, 주석, 해석서의 심화 발전의 모습들이 이어졌다. 국왕인 정조까지도 “주자는 내가 존경하여 스승으로 삼는 분이다.”, “내가 입학(入學)한 뒤로 주자의 저서를 몹시 좋아하여 이것을 손에서 놓지 않고 열람하였고, 이것을 읽는 소리가 입에서 끊이지 않았으며, 이것의 의미를 연구하고 사색하느라 마음에서 잊은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주자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장경부(張敬夫)에게 보낸 답서[答張敬夫書]’에서 ‘가족은 애석해 할 것이 없지만, 종사(宗社)는 어찌한단 말입니까?[家族不足惜 奈宗社何]’라는 문장에 포함된 ‘가족’이라는 한자어가 주자 사상의 심화 발전에 따라 확산될 소지를 응축하고 있는 것이었다.[63]

실제 17세기 초반 성리학자들의 문집에서 ‘가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1618년(광해군 10) 장유(張維, 1587-1738)가 쓴 묘지명에서는 ‘가족을 데리고 호서(湖西)지방으로 피난을 떠났다[家族避兵湖中]’라고 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64] 1621년(광해군 13) 김장생이 정철을 위해 쓴 행록에서도 ‘가족이 탕잔되었다[家族蕩殘]’라고 기록하였다.[65] 이황의 『주자서절요』를 재편집한 『주서요류(朱書要類)』를 편찬한 조익(1579-1655)의 문집에서는[66] ‘가족진섬(家族盡殲)’, ‘가족지화앙(家族之禍殃)’, ‘가족지불행(家族之不幸)’, ‘가족분리(家族分離)’ 등 가족이라는 한자어를 여러 차례 쓰고 있다.[67] 송준길, 송시열의 문집에서도 가족이라는 한자어가 자주 사용되었다.[68] 이후 17세기 후

63) 기대승의 『주자문록』에서는 이황의 『주자서절요』에서보다 그 내용을 축약해서 기록하였다. 하지만 두 요약본 모두 ‘가족은 애석해 할 것이 없지만, 종사(宗社)는 어찌한단 말입니까?[家族不足惜 奈宗社何]’ 구절을 기록하고 있어서, 조선의 성리학자들에게 이 구절이 의미 있게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4) 張維, 「故通訓大夫兵曹佐郎宋公墓誌銘」, 『谿谷集』 권10.

65) 鄭澈, 「行錄」, 『松江集』 別集 권4.

66) 강문식, 「조익의 학문 경향과 『주서요류』 편찬의 의의」, 『한국문화』 제39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97-98면.

67) 趙翼, 「通諭文」, 『浦渚集』 권23; 「耆老所. 祭春城南相文」, 『浦渚集』 권30; 「祭從弟順川文」, 『浦渚集』 권30; 「益城君神道碑銘」, 『浦渚集』 권31.

68) 宋浚吉, 「家廟告文」, 『同春堂集』 권16; 「祭李察訪文」, 『同春堂集』 권17; 宋時烈, 「答李雲擧」, 『宋子大全』 권46; 「與朴和叔」, 『宋子大全』 권68; 「答疇錫」, 『宋子大全』 권127; 「與彝錫兼示彦倫敍諸哥」, 『宋子大全』 권129; 「奉禮朴公墓碣銘」, 『宋子大全』 권175; 「戶曹參議鄭公墓碣銘」, 『宋子大全』 권179; 「坡州牧使贈參判李公墓碣銘」, 『宋子大全』 권180; 「石室金先生墓誌銘」, 『宋子大全』 권182; 「徵士持平林公墓誌銘

반, 18세기, 19세기에도 성리학자들의 문집에 가족이라는 용례가 확인된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가족이라는 용어가 주자와 연결되어 사용되었던 만큼, 가족이라는 용어에 함축된 의미는 고대부터 남송시대까지 이어져 온 가족의 의미가 그 기저에 자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금과의 전쟁으로 파괴된 남송의 공동체 질서를 재건하기 위해 주자가 가족 회복 방안이나 국가와 상대하여 쓴 가족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문집에서 사용된 '가족'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첫째, 가장과 그 가장에게 종속된 구성원으로서 공동성과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앞서 살펴봤듯이 최초로 확인되는 '가족'은 본래 혈족 집단에서 경대부의 식읍과 같은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족'의 의미가 고대만큼은 아니었지만, 조선시대에도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조선시대 문집에서는 가장과 여기에 종속된 구성원을 하나의 집단적 단위로 묶어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전쟁 중에 피난을 떠날 때, 환난을 당할 때 가족은 가장의 책임하에 함께 보호되어 생존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또한 가족은 가장의 죄에 연좌되어 공동의 책임을 져야 했다.[69] 가족은 공동의 생존(보호)과 공동의 번영,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경제적 공동의 유대체이면서도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공동체로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둘째, 공공의 유대성 속에서 사적(私的) 성격을 지닌 집단의 의미를 갖는다. 앞서 살펴봤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보자. 주자가 편지에 썼던 용례는 '가족은 애석해 할 것이 없지만, 종사(宗社)는 어찌한단 말입니까?[家族不足惜 奈宗社何]'였고, 이를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은 '가족은 애석해 할 것이 없지만, 국가는 어찌한단 말입니까?[家族不足惜, 奈國家何]' '가족은 애석해 할 것이 없지만, 천하 국가는 어찌 하겠는가[家族不足惜, 奈於天下國家]' 등으로

」,『宋子大全』권186;「淑人洪氏墓誌銘」,『宋子大全』권187;「八松尹公行狀」,『宋子大全』권209;「完山府夫人崔氏行狀」,『宋子大全』권211.

69) 張維,「故通訓大夫兵曹佐郎宋公墓誌銘」,『谿谷集』권10;『正祖實錄』卷29 正祖 14年 3月 20日 庚子; 趙翼,「通諭文」,『浦渚集』권23;「耆老所. 祭春城南相文」,『浦渚集』권30;「祭從弟順川文」,『浦渚集』권30;「益城君神道碑銘」,『浦渚集』권31.

사용하였다.[70] 주자는 금나라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남송이 멸망하게 될 경우 '가족'보다 '종사'의 멸망을 염려하였다. '종사'는 곧 종묘와 사직으로 국(國)을 의미한다. 이는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종사를 대신하여 사용한 '국가', '천하국가'라는 용어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주자나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은 이 문장에서 가족과 국가[종사, 천하국가]를 상대되게 배치하였는데, 이때 국가(國家)는 이미 선진 시기 유가, 법가, 도가의 정치사상에서 의미가 부여된 공가(公家)로서, 공사 관념이 기저에 반영된 것이었다. 사가(私家)인 가족의 존속보다는 사가의 집적인 종사, 국가, 천하국가 등 공가(公家)의 보존과 유지가 공동의 책임으로 중요시 된 것이었다.

셋째, 종법 체제의 부활이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가족의 의미가 확인된다. 송나라는 금나라의 침입으로 공동체 질서가 붕괴되면서 개체와 개체를 이어주는 관계의 본질이자 개체를 묶어주는 기초단위인 가족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종법이 부활되었다. 조선에서도 전란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해 이러한 종법의 질서가 강조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종법의 구현 공간으로서 사당과 여기에서의 축문이 송준길의 사례에서 확인된다. 송준길은 조상의 음덕으로 효종, 현종 두 명의 군주를 만났고, 참소로 벼슬에 물러나와 고향에 있는데도, 현종이 안부를 묻는 것은 모두 조상의 음덕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조상들에게 가족 모두를 보우해 주기를 고하였다.[71] 아울러 그는 같은 내용의 축문을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 사당에도 사용하였다. 이로 볼 때, 송준길은 3대조와 3대조모의 사당 및 가묘에 고할 수 있고, 그 사당에 모셔져 있는 조상의 음덕을 받는 범주를 가족이라고 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당 즉 가묘(家廟)는 종족 전체가 영원히 관계를 맺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곳에 참석할 수 있는 핵심적인 대상

70) 宋時烈, 「答李雲擧」, 『宋子大全』 권46. "所謂家族, 不足惜, 奈國家何者."; 「與朴和叔」, 『宋子大全』 권68 "所以以家族不足惜."; 李翔, 「與李監司舜弼」, 『打愚遺稿』 권5. "家族安可惜也."; 崔愼, 「華陽聞見錄」, 『鶴庵集』 권3 語錄. "家族不足惜, 奈宗社何者, 卽朱子說也."

71) 宋浚吉, 「家廟告文」, 『同春堂集』 권16. "浚吉猥承遺慶, 際遇兩朝, 遭讒退歸, 恩眷不替, 今又自上委遣掖庭人, 寄語存問, 且賜各種食物藥餌. 無非先德餘庥, 獲此曠世異渥, 愴慕感惕, 於是尤至. 惟是涯分濫越, 報答靡由, 惶愧悚灼, 若無所容. 玆因臘參, 敬伸奠告, 惟冀歆佑, 永保家族. 謹告."

은 부계혈족이었다. 17세기 초반이 되면 한 집안이 부계 혈족으로 계승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원익(李元翼)은 "아비와 아들, 아들과 손자는 단일한 기가 서로 전하니, 살아서는 한 집에서 살고자 하고 죽어서는 한 묘역에 묻히고자 한다. 이는 천리와 인정의 지극함이다."[72]라고 하였다. 주자의 '동기(同氣)' 이론을 바탕으로 '일기상전(一氣相傳)'의 부계 질서를 강조하며 제사를 거행하는 종족제도가 가족이라는 용어에도 내재화되었던 것이다.[73]

5. 맺음말

지금까지 검토한 한자어 가족을 언어학자들이 사용하는 기표와 기의라는 측면에서 요약 정리함으로써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74] 오늘날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사회의 최소단위'는 한자어 '가족(家族)'이라는 기표(記表)로 사용된다. 그리고 흔히 이 기표는 오래 전부터 으레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이에 '가족'이라는 기표가 우리 역사상에서 언제부터 사용되었던 것이며, 그 기의(記意)가 오늘날의 기의와 동일했던 것인가 하는 점에 주목하여, 한자어 '가족'의 기원과 그 등장 배경을 살펴보았다.

한자어 가족은 『관자』「소광」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데, 제후에 의해 분봉된 경대부들의 정치행정단위로서 경대부의 식읍과 식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히려 오늘날의 가족이라는 기의와 가까운 당시의 기표는 '가(家)'라고 할 수 있었다. 가는 혼인과 혈연으로 구성된 동거(同居), 공재(共財), 합찬(合爨)의 경제생활 단위이며, 가족구성원 간에 윤리규범이 실천되는 관계로 두루 사용되었다.

---

72) 李元翼, 「書示子孫」, 『梧里先生文集補遺』. "父而子子而孫, 一氣相傳, 生欲同一家, 死欲同一塋. 此天理人情之至."

73) 이종서, 『고려조선의 친족용어와 혈연의식』, 신구문화사, 2009, 191-219면.

74) 기표(記票, signifier)와 기의(記意, signified)는 소쉬르가 제시한 것으로, 추상적 관념을 기의라고 하고, 의미의 운반체를 기표라고 한다. 이러한 논의를 따르면, 한자어 '가족'은 문헌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로서, 기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자어 '가족'이라는 시각적 이미지 또는 음성적 이미지를 가리킬 때 떠오르는 추상적 관념은 기의가 된다. 기표 및 기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고대 중국의 문헌과 달리 현재까지 확인된 고대, 고려시대까지의 우리 문헌 자료에서는 한자어 가족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가(家)'라는 한자와 다양한 한자가 결합하여 가족이라는 기의를 표시하였다. 이를 한자의 특성에 따라 6가지 계통으로 구분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전근대' 사회 '가(家)'의 기의와 연결하여 의미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어휘들은 혈연의 유래나 계통과 관계되거나, 집합적 단위를 나타내는 한자와 결합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었다. '전근대 신분제 사회'에서 '개인'이 입신양명하고자 하는 욕망이나 '국가'가 수취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욕망은 개인보다는 개별 가호가 결합한 족(族)이나 '세대복합체' 단위로 구조화될 때 구현되기 용이한 것이었던 만큼, 가족 관련 기표 역시 그러한 특성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는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다. 다만 성리학의 수용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기표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고려 말 조선 초 가훈서가 보급되면서 가정이라는 어휘가 나타났고, 또한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족이라는 한자어도 문헌에 등장하였다. 문헌상에 나타나는 한자어 가족이 조선의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사용되게 된 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실마리는 송시열의 편지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가족은 애석해 할 것이 없지만, 국가는 어찌한단 말인가'라는 구절이 주자가 남헌에게 고한 말에서 인용되었다는 출처를 단초로 주자의 글을 검토한 결과, 『회암집』(『주자대전』) '장경부(張敬夫)에게 보낸 답서[答張敬夫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답서는 이황 기대승 등에 의해서 『주자대전』을 편집한 편집서에 수록되었다. 특히 이황의 편집서인 『주자서절요』가 성리학의 입문서가 되고, 그 내용이 심화 발전되면서 새로운 가족이라는 기표가 확산될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다. 더구나 이 편지는 '의리', '복수', '수신' 등 주자의 사상을 잘 서술하면서도, 임진왜란, 병자·정묘호란 이후 조선 사회의 맥락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가족'이라는 기표가 주목되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이라는 기표는 중국 고대부터 남송시대까지 이어져 온 가(家)의 기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금과의 전쟁으로 파괴된 남

송의 공동체 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주자의 국가와 가족에 대한 인식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며, 성리학을 수용하고 전란 이후 조선 사회 재건을 위한 가와 국의 관계에 대한 조선의 이해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조선시대 '가족'의 기의는 가장과 그 가장에게 종속된 구성원으로서 공동성과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공의 유대성 속에서 사적(私的) 성격을 지닌 집단의 의미를 지녔고, 종법 체제의 부활이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한자어 가족의 등장과 그 배경을 다소나마 밝혀보았다. 그렇지만 본고는 '가족'이라는 기표와 기의의 변화를 해명하기 위한 극히 초보적인 시론에 불과하다. 조선시대에 '가족'의 기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리학에서의 '가'와 '국', '사'와 '공'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하다. 또한 한자어 가족이 등장한 이후 거의 2세기 이상 『조선왕조실록』에서 가장 두드러진 기표로 사용되지 않았던 가족이라는 용어가 오늘날 다른 모든 용어를 압도하여 우위에 서게 된 흐름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谿谷集』, 『管子』, 『同春堂集』, 『白虎通義』, 『說文解字注』, 『松江集別集』, 『宋子大全』, 『宋子大全隨箚』, 『詩經集傳』, 『周易本義集成』, 『楚辭章句』, 『春秋左傳注疏』, 『打愚遺稿』, 『浦渚集』, 『鶴庵集』.

朱 子, 『晦庵集』(欽定四庫全書本).
李 滉, 『(규장각자료총서 유학편) 朱子書節要』 1, 서울대 규장각, 2004.

강문식, 「조익의 학문 경향과 『주서요류』 편찬의 의의」, 『한국문화』 제39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97-133면.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김두헌,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 출판부, 1969.
노명호, 「고려사회의 양측적 친속조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8.
노태돈, 「羅代의 門客」, 『한국사연구』 제21·22합집, 한국사연구회, 1978, 1-32면.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 너머북스, 2014.
미조구치 유조 외 엮음, 김석근·김용천·박규태 옮김, 『中國思想文化事典』, 책과 함께, 2015.
박경래 역, 최두남 조역, 『국역 주자문록』,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2014-2015.
백은기, 「주자대전 번역 연구」(KRF-2003-071-A12001), 전남대, 2003.
徐楊杰, 윤재석 옮김, 『중국가족제도사』, 아카넷, 2000.
余英時, 이원석 옮김, 『주희의 역사세계』 하, 글항아리, 2015.
宇野哲人, 손영식 옮김, 『송대 성리학사 2』, 울산대 출판부, 2005.
이경구, 「조선후기 '주자주의'의 동향과 이용후생 개념의 부상」, 『개념과 소통』 제10호, 한림과학원, 2012, 69-103면.
이상하,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가 조선조에 끼친 영향」, 『퇴계학보』 제132집, 퇴계학연구원, 2012, 5-38면.
이영훈, 『한국경제사』 Ⅰ, 일조각, 2016.
이종서, 『고려조선의 친족용어와 혈연의식』, 신구문화사, 2009.
이향준, 「한국 성리학의 해석학적 발전—「주자대전」의 주석서를 중심으로」, 『율곡사상연구』 제25집, 율곡연구원, 2012, 129-160면.
장현근, 「家개념의 유래와 사회학」, 『전통과 현대』 2000·가을호, 전통과현대사, 2000, 16-28면.
퇴계학연구원 편, 『국역 주자서절요』, 퇴계학연구원, 2001.

束景南, 『朱熹年譜長編』, 華東師範大 出版社, 2001.
陳 來, 『編年考證』(증정본), 上海人民出版社, 1987.

「고려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삼국사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Abstract】

The Advent of "Gajok (家族)" and Neo-confucianism in the Choson Period

Park, Mi-Sun*

This study explored the Gazok (家族)-related usage in history in the consciousness that the term 'family', which is called as the smallest group in society, is in the process of creation, transformation, or extinction like life, not constant fixed vocabulary. And the origin and emergence background were also examined

The word currently meaning a family, 'Gajok' in Chinese characters, meant firstly 'the members to feed in Sik-eup (食邑)' as a political administrative unit, which was different from the current meaning, 'family'. Rather, 'Ga (家)' of the word was used as meaningful to explain the relationship of the family consisted of marriage and blood.

Next, It was confirmed that the word, Gazok had not been used until the Goryeo Period, but appeared in the literary records in the Choson Period. Thus, the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of the advent of term 'GaJok (family)' in the Choson Dynasty. The study focused on Zhuxi (朱子) because the term, 'Gazok (家族)'was spread among the Neo-Confucian scholars of Choson, which showed there was the correlation through the spreading of *Zhuxiseojeoryo*, as the edition of *Zhuxidaejeon*.

Lastly, the study showed that the word 'Gazok' in the Choson Dynasty had commonness and political character and the meaning of a group with a private character in public ties, and could be understood in the social context of the resurrection of the Clan rules.

Keywords: family/Gazok (家族), Ga (家), *Zhuxiseojeoryo* (朱子書節要), Neo-Confucianism.

접수일: 2018.12.31. || 심사일: 2019.01.09. || 게재확정일: 2019.02.01.

* HK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Chonnam University.